

문경지사

원광대 조영진 발전전략과장 전국대학교기획관리자협 회장선출

원광대학교 기획처 발전전략실 발전전략과 조영진(사진) 과장이 지난 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995년 창립된 전국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는 2008년부터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4년제 모든 대학교가 회원교로 참여해 현재 20여 개 대학이 활동하고 있다.

조영진 신임회장은 "대학교구조개혁과,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전국 대학의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교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2기분 자동차세 115억 부과

군산시가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 중 연납차량과 비교해 1.5배 증가한 6만1934건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115억원(전년 동기대비 1068건에 2억6900만원 증가)으로 이 중 승용차는 6만16472건에 114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수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기구 2차량 증가와 차량 보유 불편화로 자동차세는 꾸준히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전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는 13일 국가식품롤러스터지원센터에서 민선6기 3차년도 제3차 정기회의를 갖고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 대선 공약사업 발굴 등 상생 협력 발전의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도약을 꿈꾸는 국가식품롤러스터의 기업지원시설 중 하나인 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는 정현을 익산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황숙주 순창군수의 인사말과 2차 회의 건의사항 전달, 주요안건 심의, 시군 간의 및 홍보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군 간 상생발전과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와 전북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보건소-통합건강증진센터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가 통합건강증진센터와 함께 겨울방학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인 '내 몸애(愛) 건강 더하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신체활동이 필요한 초등학생 4학년 이하 학생들을 추천받아 각종 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선발된 30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25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비만도 측정, 체성분·기초체력 검사, 식사·운동일지 작성법, 부모와 함께하는 조리실습 등 영양 프로그램과 농구교실, 음악 놀이, 방송댄스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한다.

전형태 군산시 보건소장은 "어린이 건강교실은 아이들의 조기 건강 습득과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군산시, 최우수기관 선정

사업관리·성과분야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일자리 창출 기여

군산시가 13일 열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합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산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사업비 28억6800만원을 투입해 서비스 제공 기관 54개소에서 263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리 및 성과분야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발굴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특히 협동조합 늘 배움터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이밖에도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사업홍보, 서비스 제공기관과 간담회 개최, 제공기관 멘토멘티 결연을 운

영한 바 있다.

이처럼 군산시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관점에서 공급기관화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해나지오·현대3차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최근 공동주택 흡연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군산 해나지오 아파트와 현대3차 아파트가 군산시보건의소에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해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신

청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일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현재 군산에서는 해나지오아파트와 나운동 현대3차 아파트가 주민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지정을 신청했으며 보건소는 주민들의 동의 확인 절차를 거쳐 검토 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을 두고 초기에는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관리사무소의 중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어 힘들지 않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약속한 만큼 공동주택의 환경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중국 요녕성동문회, 창립대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중국 요녕성동문회가 지난 10일 중국 심양 쉐닝시호텔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요녕성문화산업협회 단장 남 회장과 성중환우호협회 곡금양 회장을 비롯해 로산미술학원 각 학과 책임교수, 동북대학, 심양사범대학 등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원광대에서는 정수진 국제교류처장과 조현우 국제교류과장이 참석했다.

원광대 요녕성동문회는 현재 40여 명의 동문이 회원으로 등록된 가운데 로산미술학원을 중심으로 동북대학과 심양공과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초대회장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원광대에서 수학한 로산미술학원 이광군(요녕어어문화발전유한회사 이사장) 교수가 추대됐다.

이광군 회장은 "로산미술학원과 원광대는 1993년 결연을 맺고 교환교수 파견과 학술교류, 미술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원광대 요녕성동문회 창립을 계기로 동문회 활성화와 양국 간 문화교육 예술교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문회 창립 축하를 위해 참석한 정수진 처장은 "원광대에서 배출한 외국인 교류학생 수가 2,000여 명에 달한다"며, "지난해 연변대를 시작으로 산동, 강소, 내몽골에 원광대 동문회가 설립됐고, 이번에 요녕성동문

회까지 설립됨에 따라 향후 배출되는 동문을 비롯한 중국 전역의 동문 자원을 기반으로 한·중 간 친선교류 및 협력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중환우호협회 곡금양 회장은 축하를 통해 "원광대는 중국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중한 우호 교류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단체로서 성중환우호협회와 협력 및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중국지역 동문회 활성화 및 중국 교류대학 간 공동사업 추진으로 유학생 유치 기반을 넓히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립합창단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캐롤 파티'

내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군산시립합창단이 오는 내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박지훈 지휘자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캐롤 파티'를 펼친다.

군산시립합창단은 성탄절을 앞두고 아름다운 합창과 특별한 이벤트로 우리 귀에 익숙한 캐롤을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군산시립합창단 4 Cdrs의 아름다운 합창과 현대무용, 아가펠라 캐롤을, 2부에서는 생일송 파티와 메리크리스마스 군산을 무대에 올린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합창대에서 선보이는 첫 유료 기획공연으로 그동안

시립합창단을 사랑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될 전망이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5000원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시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초·중·고 다자녀 가구 등은 50% 할인받을 수 있고, 36개월 아동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김봉근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은 사랑과 온정이 가득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위해 시민들에게 선사하는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종합선물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과 감동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 관람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가 제199회 정례회 회기중 현강방문 일환으로 13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을 관람했다.

내년 1월 30일까지 9주간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중앙박물관의 주관으로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 등 1,700여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백제 유물을 최초로 서울·경기관에 전시

하여 우리 지역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된다.

소병홍 의장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후 우리 익산은 공주·부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시의회의 관람과 여론 형성은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특별전 관람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성금·성품 기탁 이어져

연말을 앞두고 군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 성산면 소재 남광 전문공무원 (재)성산공원(대표 문근식)은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며 13일 군산시에 성금 1000만원을 전

달했다. 문 대표는 매년 지역연대 육성을 위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군산시 육산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유통전문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주)지자알엔(회장 서기성)도 군산시를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서 회장은 프랜차이즈 한의원인 '자연과 한의원' 대표 원장이자 한의학을 기초로 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유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지자알엔, (주)내추럴원, (주)

미뉴테코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대어면 지경교회(목사 장철희)도 백미 10kg 200포(400만원 상당)와 대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최영택 추진위원장이 백미 10kg 50포(100만원 상당)를 대어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앞서 지난 9일 옥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교사리 손오 직접담근 김장김치(10kg) 3박스를 육산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육산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60여명도 지난 10일 나운3동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온 시민에게 전해져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구 치과와 남성고등학교 익산시청 34회 동문이 연말을 맞아 지난 13일 익산행복나눔마켓에 쌀 10kg 400포와 연탄 10,000장(1,4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김종구 치과는 2012년부터 매년 행복나눔마켓에 백미를 기탁해 왔으며 이번 기부에는 남성고등학교 34회 동문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 전보다 많은 백미 400포를 기탁하게 되었다.

또한 올해는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연탄 10,000장을 함께 기탁했다.

익산시에 소재한 (주)전라주정(대표 조영석)은 12월 13일 마동주민센터를 방문해 345만원 상당의 쌀 20kg 100포를 마동지역 저소득 계층 50세대에 기탁했다.

13일 마동주민센터에서는 (주)전라주정 조영석 대표 김형순 마동장

김상섭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미 기탁식이 열렸다. 이날 (주)전라주정 직원들은 직접 50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고 저소득 세대의 고단한 삶을 위로했다.

(주)전라주정은 매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익산시에 기부해 왔으며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이 회사 인근의 마동공민 우수저류조 골목길 등을 청소해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시 금강동에 소재한 대경글로벌로지텍(주)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1일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추진했다.

이날 유재훈 대표 외 임직원 20여명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산동과 춘포면에 거주하는 주민 4세대를 방문해 연탄 300장을 배달하고 그외 각각 쌀 40kg 라면 2박스, 굴 1상자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김기네 김치찌개 청소년복지미션사업에성금 750만원 기탁

익산 김기네 김치찌개(대표 김교원)가 13일 오전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750만원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장학금과 부족한 교과목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미션사업에 쓰여 질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사회 사명에 앞장서는 김교원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보내주시는 정성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며 "도움

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웃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교원 대표는 2007년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지역사회 사랑을 실천해왔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리 동로타리 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러브하우스 지원 사업, 환경정화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꾸러미나누기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익산=정양원기자